

국회서 GGM ‘캐스퍼 전기차’ 첫 시승

우원식 의장 “광주형일자리 전국 펼쳐내 광주정신 실현” 姜시장 “GGM, 글로벌공장 도약 국회 관심·지원” 요청

대한민국 국회에서 ‘캐스퍼 전기차(EV)’ 첫 시승회가 열렸다. 광주시는 ‘국회, 광주의 날’ 둘째 날인 3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강기정 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남남 국회의원,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캐스퍼 전기차 시승식’을 열었다.

시승식에서는 강기정 시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함께 탑승해 국회 경내를 순회했다. 또 시승식 이후 국회의원회관 앞에 마련된 캐스퍼 전기차 전시관을 찾아 차량 내·외부를 살펴보고 광주형상생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 캐스퍼 전기차의 성공을 기원했다.

앞서 광주시와 국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캐스퍼EV 구매협약’을 맺고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캐스퍼 전기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만든 국회가 제2의 도약에 나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양산하는 캐스퍼 전기차 흥행에도 함께 나선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를 대한민국으로 펼쳐내는 것이 광주정신을 제대로 살리

는 길이다. 광주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광주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에 서도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만든 전기차를 구매해 광주정신을 잘 새기면서 국회의원 공유 차량으로 쓸 예정이다. 국회의 작은 기여가 광주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상생형 일자리를 만

드는 새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의 법률적 근거의 틀을 마련해 주고 국회에서 캐스퍼 전기차(EV) 구매와 함께 시승까지 나서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드린다”며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글로벌 완성차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판매 촉진을 위해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최대 87만원을 상

생형 일자리 구매 보조금(정부 지원금 50만원·광주시 지원금 29만원·취득세 감면 50만원) 등으로 지원한다.

또 산하 공공기관과 ‘캐스퍼 전기차 우선 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 업무용 차량 구입 시 캐스퍼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며 판매 촉진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캐스퍼 전기차는 기존 계획인 1만7천여대보다 6천여대 늘어난 2만3천여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판매는 물론 유럽, 일본 등 54개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박성각 기자



3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앞에 마련된 캐스퍼EV 전시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차량 시승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확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12항목 추가 총 412항목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이달부터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402개 항목에서 41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 검사 항목 확대에 따른 것이다. 생산 단계에서 부적합이 있는 농약 성분이 추가됐다. 여기에 시험법 변경으로 분석 가능해진 항목을 더해 412개 항목을 시행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순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부적합 빈발 농

산물 등을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한 압류, 폐기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문희 농산물검사소장은 “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 차단 및 법적 조치를 더욱 신속히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무등도서관, 자료실 이전 공사 임시휴관

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도서 대출 반납 등 중단

광주시립무등도서관은 3일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통합 이전 공사로 오는 9일부터 10월14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디지털자료실(1층)을 종합자료실(2층)로 통합 이전에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 및 전자(디지털) 서비스를 야간(오후 6시-10시)에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디지털자료실 이전에 따른 빈 공간은 이용자 휴게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휴관 기간에는 도서 대출 반납, 예약 도서 등의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다. 단, 전자도서관, 이동도서관, 무인반납기, 책나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과 무등도서관 종합자료실(062-613-7717)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자료 정보의 통합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향상을 위해 자료실 통합 이전 공사를 진행한다”며 “공간을 재구성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독서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성각 기자

김·유자차·화장품...전남 농수산물식품 몽골서 인기몰이

道, 유망품목 시장개척단 파견...13억원 규모 수출 계약 성과

전남도는 3일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몽골 현지인들에게 인기몰이를 하며 5천만원 상당의 현지 판매와 13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 1일까지 3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24 한국주간(KOREA WEEK)’ 행사에 전남 수출 유망 품목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전남도는 고흥군과 함께 이번 행사

에 대륙식품(주), 매일식품(주), ㈜바다명가, 농업회사법인 ㈜골든힐, 록바이오택, 유한회사 김시월, ㈜푸른정식품, 완도물산 영어조합법인 등 지역 중소기업 8개 사를 파견해 현지에서 전시와 판매 활동을 펼쳤다.

김, 유자차, 후리카케, 화장품 등 다양한 전남산 식품들이 빠르게 소진되며 케이(K)-푸드에 대한 몽골 소비자의 관심을 확인했다.

참가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총 5천만원 이상의 판매 성과를 올렸으며 특

히 고흥군의 ㈜대진은 몽골의 유력 유통사와 13억원 규모의 계약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부 기업은 까르프, CU, GS25 등 대형 유통사들과 수출 상담을 추진해 몽골 시장 본격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는 몽골 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전남도의 우수한 품질이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몽골 시장개척단 파견은 현지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전남 우

수 농수산물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몽골 행사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4 한국주간’ 행사는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과 울란바토르시가 공동 주관했다.

전남도와 경북도 등 지자체 뿐만 아니라 코트라(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양시원 기자

오늘까지 목포서 ‘꿈나무 체육대회’

전국아동복지시설 대상 4개 종목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사기 진작과 협동심 향상을 위한 축제의 장인 제2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가 목포에서 열렸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전남 목포체육센터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까지 초등부·중등부로 나뉘어 축구, 배드민턴, 탁구, 계주 등 4개 종목으로 펼쳐진다.

개회식에는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과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박문옥 의원, 선수단 및 사·도 협회 응원단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해군3함대 군악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격려사, 씨인발 전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명장환 부지사는 “아이들의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쌓아가는 꿈나무 체육대회가 ‘맛과 멋’의 도시, 남만항구 목포’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대회가 꿈나무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꿈나무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 단위 체육행사다. 보건복지부·전남도·목포시가 후원한다. /양시원 기자

경철정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임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자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군 브로커